



2020년 12월 27일(제1015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생가지 축일(기장 성회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기록함은 주님께게시민”

가족이 한집에 살아도 취향은 서로 다릅니다. 누구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탕수육을 시켜도 찝떡(소스에 찌어 먹는다)과 부먹(소스를 부어 먹는다)으로 나뉘기도 하지요. 그럴 때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서로 원하는 대로 누구는 찌어서, 누구는 부어서 먹도록 배려합니다. 그럼 서로 만족하는 평화로운 식사가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좋으니 다 같이 부어 먹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싸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이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라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평범한 가정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주어진 소명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가정의 모범을 이루신 예수님의 가정이지요. 요셉은 가장으로서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랐고, 아들 예수가 잘 클 수 있도록 남모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아들 예수가 잘 클 수 있도록 물심양면

으로 도왔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 예수를 키웠는가를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보여주신 모습들, 성부의 아들로써 철저히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들,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요셉과 마리아의 교육방식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인 자기 뜻대로 예수를 교육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고 따를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나 가정은 이를 수 있지만, 성가정이 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가정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가정, 이 거룩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주님께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형원(디미아노) 신부  
백골(3사탄)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집회 3,2-6.12-14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 2 특 시** 콜로 3,12-21
- 복음 본보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루카 2,22-40
-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세 번째 시한

세실 함장은 남경에 상륙하기를 위하여 중국인의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였는데, 그 배는 낡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배가 여러 군데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더 견고한 배를 구하려고 뒤프레(Dupre) 씨와 저를 상해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해 부근에 상륙하여 중국 관리의 도움으로 상당히 큰 배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배를 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세 번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튿날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배를 끌어 왔습니다.

이 배를 가져온 다음에 세실 함장은 자기 부관 뒤프레 씨와 (프랑스 왕) 필립의 사절, 지리학자와 저, 그리고 약 20명의 선원들을 대동하고 16일 동안 항해한 후 강화 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날 남경에 도착하여 조인식에 참석하고, 4명의 중국인 고관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 이튿날은 남경탑과 교외를 관광하였는데, 성안의 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국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위에 말한 진강부를 점령하는 데 150명의 군인들을 잃었으며,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 악취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국 고관은 영국군이 승리한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매스트르 신부님도 편지하실테니까 저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주시기를 청하고, 아울러 내내 안녕히 계시기를 빕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 추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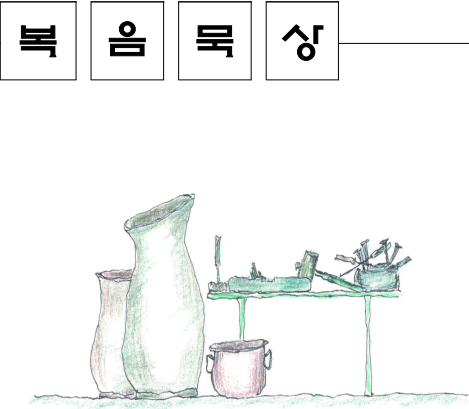
파리에 계시는 장상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매스트르 신부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프랑스어 공부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또는 아주 포기해야 할지를 대표 신부님(리브와 신부)께 문의해 보라고 매스트르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프랑스어 공부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지 또는 계속해야 하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공부의 계속을 허용치 않으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sup>1)</sup>

1) 사실인즉, 이 같은 이유에서 매스트르 신부가 파리의 장상(신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김대건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을 금지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매스트르 신부는 르그레즈와 신부와 리브와 신부에게 김대건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한 것으로, 본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살림

이 어설퍼 보이는  
살림으로  
우리 세 가족  
먹고 살았답니다.

남편은 나가,  
목수 일로 품삯을  
받아오고.

난, 아이를 등에 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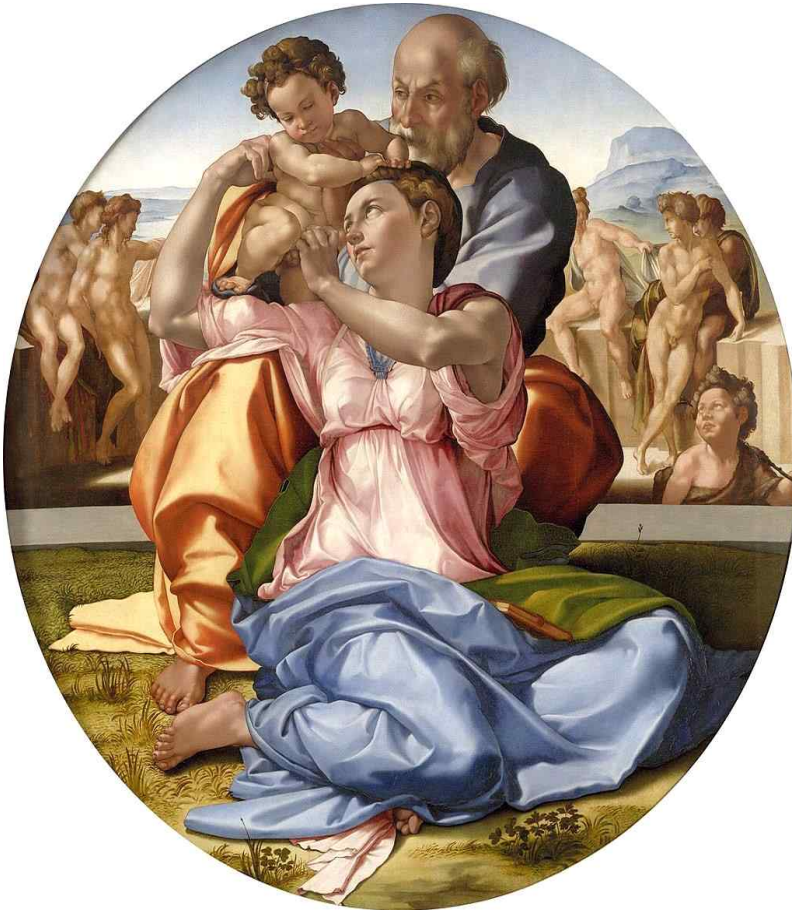
물 갖고, 집안일.  
가공은 옆집  
허드렛일을 도우며.

우리 세 가족  
그리 살았답니다.

이역만리  
타지에서.

상화이야기

도니 톤도



동그란 형태의 캔버스는 주로 가정에 걸리거나, 결혼과 같은 가정을 소재로 한 주제들을 다루는 형태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톤도는 이탈리아어로 ‘둥근’이라는 뜻이다.

아놀로 도니가 자신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한 작품이라 도니 톤도라 불린다.

이 그림의 주제는 ‘성가정’으로, 바닥에 쿠션이나 의자 없이 성모님이 앉아 계시고, 뒤편에 성요셉이 마치 성모님의 어깨로 아기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듯이 보인다. 이 그림의 주제는 ‘성가정’으로 대부분 이해되고 있으며, 오른쪽 뒷배경과 전경 사이에 아기 세례자 요한이 보인다.

미켈란젤로, 1507년경 제작  
패널 위 유화, 지름 120cm

화려한 색깔과 함께 로마조각상에 차용된 것 같은 뒤틀린듯한 포즈와 근육질의 몸매는 후에 제작된 시스틴 경당의 작품들을 상기시킨다.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물들의 그 어떤 정신적·육체적 ‘단단함’으로, 이는 마치 그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을 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성가정 축일: 목포해군 김혁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종무식

때·곳: 12월 31일(목) 11:30, 교구청

◆ ‘군중의 시김’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